

이 책은 일제시대나 1960~70년대 '기생관광' 류의 상상력을 그대로 승인하는 듯하다. 지은이는 근대 이전과 이후 기생의 지배·종속구조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기생의 존재목적은 언제나 매춘이었다고 주장한다. 지은이가 대외종속과 매춘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치중함으로써 기생의 역사를 평면화해버렸다면, 우리는 기생이라는 존재의 근거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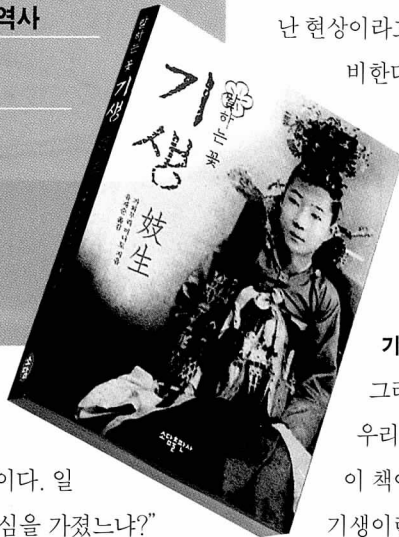
책갈피산책

《말하는 꽃 기생》

'대외 종속'과 '매춘'으로 다시 쓴 기생의 역사

가와무라 미나토 지음 | 유재순 옮김
소담/85년형/344면/10,000원

권보드래 | 서울대 국문과 강사



일본인이 쓴 한국 연구서라고 별 편견이 있진 않았다. 다만 《말하는 꽃 기생》(소담)은 읽고 나니 편견이 생겨버린, 나로서는 개운찮은 책이다. 일본인 한국문학 연구자에게 “왜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졌느냐?”고 물었더니 “일제시대의 한국문학이라면, 더욱이 일본어로 씌어진 문학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일본문학의 일부일 테니까”라는 답이 돌아오더라며 분개하는 선배를 본 일이 있다. 한국학을 공부하겠다는 학생은 십중팔구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고 싶어서” 운운한다면서 개탄하는 일본인 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풍문을 100% 믿을 수야 없는 노릇이지만, 이런 분개나 개탄이 근거 없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일본인에게 한국은 ‘엄연한 타자’라기보다 끊임없이 동일시하게 되는 대상, 일종의 ‘열등한 자아’가 아닐까 싶어 조마조마해지는 경험은 종종 있었으니 말이다.

기생에 대한 일본인의 편견과 오류 거슬러

시비를 먼저 걸자면, 《말하는 꽃 기생》(소담)은 일제시대나 1960~70년대 ‘기생관광’ 류의 상상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듯하다. 지은이 스스로 “나에게 있어 기생이란 존재는 과거의 우아한 문화적 유산이라기보다 일본의 조선반도 식민지 지배와 깊이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거기서 “민족적인 지배”와 “성적 지배”를 동시에 읽어내려 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의 관련을 전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다. 근대 이후 기생 문화에 스며 있는 일본의 시선과 권력을 감별해내는

일이야 물론 중요한 과제다. 문제는 이런 근대 이후의 상황을 초역사적인 조건으로 해석해내려는 시각에 있다. 지은이는 근대 이전과 이후 기생의 지배·종속 구조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조선의 기생은 중국과의 ‘기생정치’ ‘기생외교’를 위해 키워진 존재였다고 지적하고, 기생의 존재 목적은 언제나 매춘이었다고 주장한다.

기생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첫 장과 마지막 장을 각각 오늘날의 윤락 산업 실태에 할애한 책의 구성이야말로 기생에 대한 지은이의 시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외 종속과 매춘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기생의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의욕은 때때로 지나칠 만큼 넘쳐흐른다. 대외 점대용에 불과했던 1960~70년대의 ‘기생’이라는 명칭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퇴폐이탈소마저 외국인을 위해 생겨난 현상이라고 분석하는 과잉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에 비한다면 신라시대의 원화와 화랑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고나 연산군의 언문 탄압 사실을 거꾸로 기술한다고나, 어어머리라면 무조건 기생의 특색으로 생각한 나머지 신윤복의 <이부탐춘>까지 기생 그림으로 받아들인다고나 하는 오류는 한결 소소한 문젯거리다.

기생에 대한 무지몽매한 우리 인식 반성해야

그러나 맹목의 지점이 어디 지은이에게만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라는 위험한 명칭을 잠시 쓰도록 하자)가 범해온 맹목은 이 책이 새로워 보인다는 사실 자체부터 드러난다. 생각해보면 기생이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입에 올려온 화제였던가. 기생의 시조를 배우고, 황진이나 소춘풍의 일화를 흥미진진하게 듣고, 논개나 계월향을 입에 올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생이라는 존재의 실상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 이 책의 지은이가 대외 종속과 매춘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치중해 기생의 역사를 지나치게 평면화해버린 감이 있다면, 반면 우리는 기생이라는 존재의 근거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닐까. 폐쇄적이었던 조선시대, 기생만은 홀로 자유롭고 낭만적인 연인이었다는 식의 상상에 취해 기생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살펴보는 데 지나치게 게을렀던 것은 아닐까. 심지어 기생이 관비(官婢)였다는 사실마저 깜박깜박 잊곤 하는 게 우리의 기억력이나 말이다.

아직도 기생의 역사에 대한 통사적 서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일제시대에 관한 한 이의 없이 경청해야 할(참, <기생양성소 규정> 같은 희귀자료까지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번역됐다는 건 어쨌거나 반겨야 할 일이다. 그저 이쪽의 맹목과 그쪽의 맹목이 충돌하기보다는 서로 감싸안을 수 있기를. ■

권보드래씨는 서울대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국문과 강사로 재직중이다.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을 펴냈고, <문학 범주의 형성과정> <신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 의미>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